

2015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치고

■ 일 시 : 2015년 4월 8일(수)~10일(금)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 DCC)

2015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4월 8~10일, 사흘에 걸쳐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춘계학회는 2,100여 명의 인원이 등록한 가운데, 논문 발표 편수도 초청강연 105편, 구두발표 70편, 포스터발표 922편 등 총 1,097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학회도 어느 국제학술대회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 발표 및 참석자들의 심층토론을 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성장한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볼 수 있었으며, 매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초강연으로 효성기술원에 이상선 원장께서 “국가 미래성장동력에서 부품/소재의 역할-창조경제 Flagship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Utah 대학교의 배유한 교수께서 “pH-Responsive Polymers for Cancer Drug Delivery”라는 제목으로 기초강연을 하셨습니다.

9일 오후에 열린 총회에서 삼성고분자학술상을 김종만 교수(한양대학교), LG화학 고분자학술상을 김성훈 교수(한양대학교), 중견학술상을 이태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진형준 교수(인하대학교), 신진학술상을 서명은 교수(KAIST), 이강원 박사(KIST), 기술상을 박상현 박사(롯데케미칼)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또, 윤영수 박사(인하대학교), 이보람 박사(UNIST)에 대한 우수박사학위논문상과 구강희 회원(KAIST), 김인혜 회원(충남대학교), 그리고 오찬석 회원(단국대학교)에 대한 우수석사학위논문상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고분자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둘째 날 Molecular Electronics Division, 고분자구조 및 물성, 고분자합성, Biomedical Polymers Division, Korea-Japan Joint Symposium: Sustainable Plastics and Biopolymers, 고분자 이론 및 시뮬레이션, Young Polymer Scientists Session,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 (I) 및 대학원생구두발표(I)의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날에는 분자전자 부문위원회, Self-Assembled Materials, 자연 모사형 광학소재 합성 및 응용,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기능성고분자, 고분자가공/복합재료,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 (II) 및 대학원생구두발표(II)의 8개로 총 17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Korea-Japan Joint Symposium을 위하여 일본에서 Hironori Izawa, Hiroataka Ejima, Yasuhito Koyama, 그리고 Chie Kojima 박사께서 참석하여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고분자학회 Ayushi Takahara 회장님께서 고분자합성 분야에서, Kazuo Sakurai 국제협력위원장님께서 기능성고분자 분야에서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17개 주제의 프로그램들은 총 9개의 회장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표, 심층 토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세션에서의 영어발표를 통해 최고수준의 국제학술대회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17개의 주제 중 Molecular Electronic Division, Biomedical Polymers Division, Korea-Japan Joint Symposium: Sustainable Plastics and Biopolymers, Young Polymer Scientists Session 및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 (I, II) 등 총 6 세션은 영어 발표로 진행되어 국제적인 학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원생 구두발표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소 현장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 및 결과가 논의되는 자리로써 많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활기차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에는 36편, 한글로 진행된 대학원생 구두발표 세션에는 32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예년에 비해 영어로 논문발표를 하는 학생의 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에는 9일 오전과 10일 오전 및 오후, 총 3회에 걸쳐 9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춘계학회에서도 포스터 및 대학원생 구두발표 논문들 중에서 학술위원회에 의해 사전 및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께서 연구창의성, 연구내용 및 발표력 등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포스터 부문 21편의 응모 논문 중 6편, 구두(영어) 부문 16편의 응모 논문 중 5편, 구두(일반) 부문 7편의 응모 논문 중 2편의 논문을 우수논문발표로 선정하여 총 13편을 시상하였습니다.

기기전시 및 기업체 홍보 부스에는 37개의 기기전시 부스 및 10개의 기업체 홍보 부스 등 총 47개의 부스가 이번 춘계 학회에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전시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전시부스를 참여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회원님들이 기업체 홍보 부스와 기기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기기전시 및 기업체 홍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 학회의 기기전시 준비 및 운영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기전시 업체들이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전시부스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본 학회 학술대회의 기기전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학생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로 약 2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매우 유쾌한 분위기에서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응모한 회원 중 53명의 회원님들이 경품을 수령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훌륭한 학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분자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님들,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신 organizer 분들과 성공적인 세션 진행을 위하여 애써 주신 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부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 기업 및 기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안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과 학술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김덕준 전무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담당해 주신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등록과 학회장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학생 staff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무엇보다도 본 학회에 애착을 갖고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과 학회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분자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사 김범준(KAIST)>

